

즉시 보도용

2025년 10월 19일

Contact: lamayornews@lacity.org

배스 시장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 긴급한 대응으로 노숙 문제 해결 및 지역사회 회복 지속

로스앤젤레스 – 캐런 배스 시장의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이 웨스트체스터, 웨스트레이크, 이스트 할리우드 지역에서 70명 이상의 노숙인을 실내로 이주시켜, 노숙 문제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는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조치로 상업지구, 학교, 주택가 주변의 장기 노숙 캠프가 해소되며 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와 공공안전이 개선됐다.

배스 시장은 “노숙 텐트촌을 해소함으로써 도로와 지역사회가 주민에게 돌아가고, 공공안전이 향상된다.”며 “누구도 이러한 위험한 환경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생명을 구하고 지역사회를 회복하기 위해 긴급하게 이 일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 전역의 노숙 캠프는 노숙 상태의 사람들에게 위험한 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에게도 공공안전 우려를 야기한다. 배스 시장에게 있어 모든 앤젤리노의 안전은 최우선 과제이며, 노숙 캠프를 해소하는 일은 종합적인 공공안전 전략의 핵심이다.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함으로써 지역사회가 더욱 안전해지고, 긴급 상황에서의 대응력 또한 향상된다.

‘인사이드 세이프’의 핵심은 기존 운영 지역의 재점유를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다. 이번 주 웨스트레이크 지역에서 새롭게 형성된 노숙 캠프에 신속히 대응해 더 많은 노숙인을 주거로 연결하며, 지역사회 내 노숙 캠프의 재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있다.

배스 시장의 인도적 위기 대응 노력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장 취임 첫날 노숙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로스앤젤레스는 2년 연속 노숙 인구 감소를 기록했으며 이는 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시 전역에서 100건이 넘는 노숙 캠프 해소 작업을 진행해 수천 명의 주민을 내로 이주시켰다.

이 종합적 접근은 노숙 상태에 빠지기 전에 예방하는 것 또한 중점적으로 다룬다. 배스 시장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앤젤리노들을 지원하고 있다.

- 3만개 이상의 저렴한 주택 건설 가속화
- 시장 기금을 통한 검증된 퇴거 방지 프로그램 시행으로 주민들의 노숙 전략 방지
- 시 소유 부지를 활용한 혁신적 주거 해결책 ‘LA4LA’ 확대

###